

## 전남학생선수단, 전국체전 성장·집중력으로 빛나다

### 핸드볼·역도·댄스스포츠 등 지역 연계, 심리지원으로 값진 성과

“골킥과 방어율 40% 이상을 기록하며 팀을 이끈 여자 핸드볼팀, 대한민국 역도 미래를 이끌 금빛 주역들, 3년 연속 다메달을 획득한 댄스스포츠 학생까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단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값진 성과를 내며 희망의 스토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무안고등학교 여자 핸드볼팀은 3학년 주축 선수들의 공격·수비 활약과 골킥과 조은솔 학생의 방어율 40% 이상이라는 놀라운 기록 덕분에 팀 경기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매 경기 수비 집중력과 전술적 대응으로 경기를 운영했으며, 지도자의 열정적인 코칭과 학부모 응원단의 응원이 힘입어 17년 만에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스포츠심리 지원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대회를 준비한 덕에 긴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에서 18개 이상의 학교에 스포츠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조은솔(무안고, 3학년) 학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격려와 지원에 감사하고, 이 흐름대로 후배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역도 종목의 완도고 1학년 김태양(89kg급)은 인상과 합계에서 금메달 2개, 용상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고흥고 신수용(96kg급)은 용상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댄스스포츠 종목에서 금3, 은2개를 획득한 댄스스포츠 선수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합계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내 역도의 명성을 이어갔으며, 완도고 이안토니(81kg급)는 용상 은메달 1개와 인상·합계 동메달 2개를 추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시범종목인 댄스스포츠에서는 여수정보과학고 3학년 이재현 학생 외 3명이 금

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여 스포츠와 예술이 어우러진 무대를 이어갔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경기단체와 연계한 지역 기반 학교스포츠 클럽 정책을 통해 댄스스포츠를 지원했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여러 종목에

서 각기 다른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경기장에 임해준 것이 가장 값진 성과”라며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선수들이 더 높고, 더 넓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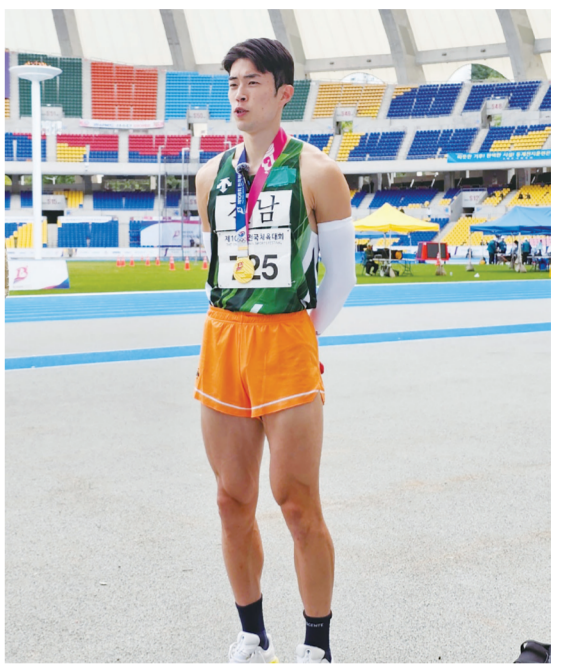
장흥군 직장운동경기부 김장우, 전국체전 세단뛰기 ‘금메달’ 16.43m 기록으로 압도적 1위, 위상 높여

장흥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소속 김장우 선수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세단뛰기 종목에서 16.43m를 기록하며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장우 선수는 뛰어난 집중력과 안정된 기술로 예선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 받으며, 결선에서도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확정지었다.

이번 성과는 장흥군청 직장운동경기부(육상부)가 꾸준히 이어온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의 열정이 빛낸 결실로, 장흥군 체육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김성 장흥군수는 “꾸준한 훈련과



열정으로 값진 성적을 낸 김장우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흥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 전남학생선수, 전국체전에서 한국 육상의 미래 밝히다

### 광양하이텍고 최지우 3관왕, 전남체육고 신규리 2관왕 등 맹활약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학생들이 부산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여자육상 최강 지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여자고등부 400m부터 1600m 계주까지 통합한 종목에서 메달을 휩쓴 선수들의 활약으로 전남 육상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양하이텍고등학교 1학년 최지우 학생은 여자고등부 4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4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최지우 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고1까지 400m 종목에서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워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1600m 믹스 계주, 여자 1600m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을 거두었다. 이 학생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국제교류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지난 6월 말러스(미국)에서 열린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참가해 선진체육 프로그램 경험 및 글로벌 문화를 향유한 바 있다.

전남체육고등학교 3학년 신규리 학생은 1600m 믹스 계주, 여자 계주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여자고등부 400m 종목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단일 종목에서 전남이 다수의 메달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으로, 지역 육상 경쟁력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양하이텍고등학교 2학년 서예지 학



여자고등부 1600m 계주에서 우승한 전남선수들이 박재현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장(맨 왼쪽), 김성환 말러스체육회장(맨 오른쪽)과 함께 시상대 위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생은 여자고등부 세단뛰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2연패라는 대표적인 연속 기록을 세웠다. 필드종목에서도 전남이 저력을 갖추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승리이다.

박재현 체육건강과장은 “우리 전남육상 선수들이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보여

준 성과는 단순한 메달 획득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이다. 지역에서 시작해 전국무대까지 도전하고 성장하는 이 선수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여자육상의 중심축이 되리라 확신하고 이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혜경 기자

## 한국, LPGA 유일 국가대항전 인터내셔널 크라운 정상 도전

김효주, 유혜란, 최혜진, 고진영으로 구성된 한국 여자골프가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200만 달러)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인터내셔널 크라운이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경기 고양시의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에서 펼쳐진다.

2014년 창설 후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터내셔널 크라운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유일의 국가대항전이다.

이번 대회에선 4명씩 꾸려진 8개 팀(▲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태국 ▲스웨덴 ▲월드팀)이 참가해 우승 트로피를 다툰다.

참가 선수는 나라별 여자골프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세계랭킹 2위 넬리 코르다(미국)를 제외한 1위 지노 티파쿰(태국), 3위 이민지(호주), 6위 야마시타 미유(일본), 7위 인튀닝(중국) 등이 총출동한다.

그동안 자국 여자골프 기반이 약해 참가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월드팀으로 함께 출전하는 것도 눈에 띈다.

월드팀에는 교포 선수인 여자골프 세계랭킹 4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비롯

해 5위 찰리 헐(잉글랜드), 25위 브룩 헨더슨(캐나다), 96위 수웨이링(대만)이 나선다.

조별리그는 여자골프 세계랭킹을 기준으로 시드를 부여해 2개 조로 나뉘었다. A조에선 미국(1위), 호주(4위), 태국(5위), 중국(8위), B조에선 일본(2위), 한국(3위), 스웨덴(6위), 월드팀(7위)이 경쟁한다.

23~25일에 각자 불을 쳐서 매 홀 더 나은 스코어를 팀 성적으로 삼는 포볼 매치 플레이로 진행되며,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상위 두 팀이 준결승에 진출한다.

26일 준결승과 결승은 공 하나를 번갈아 쳐 좋은 성적을 내는 포섬과 실클 매치 플레이로 펼쳐진다. 지난 2018년 제2회 인천 대회 챔피언인 한국은 7년 만에 국내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크라운에서 통산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선수들은 한국 갤러리의 열렬한 응원을 기대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지난 22일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효주는 “한국에서 경기해 더 많은 팬께서 응원해 주실 만큼 선수들도 힘이 날 것이다. 홈 어드밴티지도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뉴시스

마법의 국향랜드로 초대합니다

# 국향 HAM PYEONG 대전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10.24.(금) - 11.09.(일)

함평엑스포공원